# 대기업 상반기 공채 시작…대세는 脫스펙·역사

## 삼성 5000명·현대차 2400명…작년과 비슷

## 기아차, 일정 비율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

국내 대기업들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광주지역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도 공채를 진행해, 취업을 앞둔 지역 대학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대체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웃돌 것으로 보인다. 불투명한 대내외 경제 상황에서도 인재 확보로 미래에 대비하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 20만명이 몰렸던 삼성그룹의 의욕적인 채용제도 개선 시도가 연초 관심을 모았으나 사회적 공감을 얻지 못해 일단 중단됐다.

광주에 사업장이 있는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달 중 서류접수에 들어간다.

삼성그룹은 24~28일 지원서를 접수하고, 다음달 13일 삼성직무적성검사(SSAT)를 치른다. 삼성그룹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 규모는 4000~5000명 수준이며 올해 상·하반기 합쳐 9000명 정도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삼성그룹은 올해 고졸과 경력직까지 포함한 전체 인력 채용 규모도 지난해와 비슷한 2만6000명 수준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은 중순께부터 서류 접수에 들어간다.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2300~24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상반기에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체로는 그룹 출범 후 최대 규모인 86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8500여명을 고용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졸과 고졸을 합쳐 지난해보다 100명 많은 21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이 가운데 1000명을 상반기에 뽑는다.

이외에도 SK그룹은 10개 계열사가 인턴 채용 공고를 내고 3일부터 원서 접수에 들어갔으며 LG그룹은 5일 LG화학을 시작으로 LG하우시스, LG전자, LG유플러스 등의 계열사가 차례로 채용에 나선다.

롯데그룹과 GS그룹은 다음달 초부터 지원서를 받고, 동부그룹도 다음달 계열사별로 지원서를 접수한다. 태광그룹은 지난해까지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룹 공채를 했는데 올해부터 하반기 1회로 일원화했다. 코오롱그룹은 경력직 수시채용을 하지만 상반기 공채는 없다. 현대그룹과 효성·한솔그룹도 상반기에는 공채 계획이 없다.

대기업들은 단선적인 채용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인재를 선발하는 추세다.

현대차그룹은 주요 계열사 중심으로 학점, 영어성적, 전공 등에 대한 제한 요건을 없애는 대신 역사 에세이를 작성하는 평가를 도입했다. 기아차는 채용 인력의 일정 비율을 스펙과 무관하게 자기소개서만으로 선발하는 '커리어 투어' 프로그램을 지난해 도입했다.

삼성그룹은 올해부터 서류전형 부활과 대학총장 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채용제도를 도입하려다 반발에 부닥쳐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채용 방식은 지난해와 같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6일부터 스위스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선보이는 현대차의 미래형 콘셉트카 '인트라도'의 카프레임과 후드 등에 효성이 개발한 고성능 탄소섬유 탠섬이 처음으로 사용됐다. 〈효성 제공〉

# 효성 탄소섬유 '탠섬' 첫 선

## 제네바모터쇼서…현대차 콘셉트카에 적용

효성이 개발한 탄소섬유가 현대자동차의 미래형 콘셉트카 소재로 사용됐다. 우리나라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탄소섬유를 자동차에 적용한 것은 처음이다.

효성은 스위스에서 6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제네바모터쇼 2014'에서 현대자동차의 미래형 콘셉트카 '인트라도'를 통해 자체 개발한 고성능 탄소섬유 '탠섬'(TANSOME)을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탠섬은 인트라도의 카프레임과 후드, 사이드패널 등의 소재로 사용됐다. 탄소섬유는 강철과 비교해 무게는 4분의 1 수준으로 가볍지만, 강도는 10배 이상 강한 신소재다. 이 때문에 프레임이 탄소섬유로 된 차량은 기존 강판으로 제작한 차량보다 60% 정도 가벼워 연료 효율이 높다. 연료 사용량 감소로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도 평가된다.

효성은 지난해 5월 전주에 연산 2000t 규모의 탄소섬유 공장을 완공해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서 탠섬 브랜드를 선보였다. 2020년까지 총 1조 2000억원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1만 7000t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탄소섬유는 향후 '철'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동차와 풍력발전기 날개, 토목건축, 압력용기 등의 산업용과 보잉 787, 에어버스 380 등의 항공용, 골프채, 라켓, 자전거 프레임 등의 스포츠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시장규모도 현재 연간 5만t(20억 달러) 규모에서 연간 11% 이상 급성장하고 있어 오는 2020년에는 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광주기업 75% "통상임금 확대 경영 부담"

## 광주상의 111곳 조사

## 인건비 10% 이상 늘어

## 이익 줄고 경쟁력 저하

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7곳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인건비 및 원가가 동반 상승해 결국 수출경쟁력도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5일 광주상공회의소가 내놓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의 영향과 대응계획에 대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74.7%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업들은 기존의 통상임금 요건이던 1임금 지급기(1개월) 조건이 폐지되고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실제적인 요건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라는 형태적 요건을 강조함에 따라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기업들의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명확한 통상임금 산정 지침이 없이 임금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법개정 추이나 다른 기업의 동향을 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부담은 중소기업(75.0%)이 대기업(73.3%)보다 컸으며 업종별로는 철강·금속(84.6%)과 전기·전자(81.8%), 기계·장비(80.0%) 등에서 우려가 컸다. 또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36.6%)와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소 및 수출 경쟁력 저하'(22.9%)를 꼽았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확대 적용 때 인건비 상승 규모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8.8%가 상승폭이 10%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통상임금 해석을 놓고 기업 혼란이 큰 만큼 정부가 적용 범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노사간 합의사항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경영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형형색색 화려한 봄 스카프**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6일)을 앞두고 5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2층 잡화매장에 화려한 색상과 다양한 패턴의 봄 스카프가 선보였다. 올봄에는 수채화 느낌의 플라워 프린트나 화사한 파스텔톤 컬러의 스카프가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아파트 분양가, 매매가 앞섰다

## 작년 전국 평균 3.3㎡당 951만원…63만원 높아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매매가격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는 지난해 전국의 3.3㎡당 아파트 분양가는 951만원으로 매매가(3.3㎡당 888만원) 대비 63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는 주택경기가 침체된 2011년과 2012년에 3.3㎡당 가격이 매매가보다 각각 57만원, 50만원이 낮았으나 지난해 다시 역전됐다.

수도권은 3.3㎡당 분양가가 1246만원, 매매가가 1126만원으로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120만원이 더 높았다.

이에 비해 서울은 지난해 3.3㎡당 분양가가 1600만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매가(1611만원)보다 단가가 낮았다. 서울 마곡지구 등 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아파트에서 신규 분양이 많았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이미윤 팀장은 "지난해 주택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였고 특히 인기지역에서 아파트 분양이 이뤄지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시세 평균보다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 코스닥지수 | 금리 (국고채 3년) | 원·달러 환율 |
|---|---|---|---|
| 1971.24 (+17.13) | 536.77 (+5.23) | 2.90% (-0.02) | 1070.90원 (-2.60) |

#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 2016년부터 분리과세…2년간 비과세

정부가 2주택 보유자로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에게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2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영세 임대자의 과거분 소득과 향후 2년분에 대해서는 납세여부 등을 따지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보완책에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장기임대사업자(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45.3%)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한다. /연합뉴스